

# ‘여수여자만 갯벌노을 체험 행사’ 오는 28~29일 개최

소리면 장척마을 일원...개매기·바지락 캐기 등



여수시 대표 가을행사로 각광받고 있는 ‘여수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가 오는 28일과 29일 소리면 장척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개막행사와 체험행사, 문화행사로 이뤄져 있다.

개막행사는 식전축하공연과 개막식으로 진행되며, 체험행사는 개매기, 바지락 캐기, 망둥이 낚시, 맨손 고기잡이 등으로 꾸며진다.

문화행사는 풍어제, 당산제, 길놀이, 노을가요제, 노을낭만음악회 등으로 채워져 있다.

시는 올해 개매기 체험 참가자의 편의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체험장을 행사장 주무대 앞쪽으로 옮기고 체험비도 5천 원으로 대폭 낮춘다.

여수, 순천 지역 학생이 참여하

는 댄스경연대회와 여수시 아마추어 밴드의 버스킹 공연 등으로 축제를 분위기를 더한다.

아이들을 위한 갯벌놀이터와 모형등 포토존, 바다음식 체험관, 소원풍등 날리기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차린다.

행사 첫날은 오전 9시 30분 풍어제를 시작으로 당산제, 길놀이가 이어진다.

체험마당에서는 오전 9시부터 대나무 망둥이 낚시를 할 수 있고, 오후 1시에는 바지락캐기와 맨손 고기잡이 체험이 시작된다.

간조 시간인 오후 3시부터는 복개도 가족사랑 걷기체험과 보물찾기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개막식은 오후 5시 장척마을 주무대에서 30분 동안 열리며, 이후에는 노을낭만음악회와 여자만 볼

꽃소가 관람객을 매료한다.

둘째 날 행사는 체험행사와 공연행사로 구성돼 있다.

체험행사는 첫날 행사에 개매기 체험이 추가된다. 개매기 체험은 간조 때 그물에 걸린 생선을 직접 손으로 잡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송어, 갑성돔, 농어가 주 어종이며, 운이 좋으면 민물장어와 대형 노랑가오리도 만날 수 있다. 안전 문제로 고등학생 이상만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를 내면 장갑과 그물망을 무료로 제공한다. 물신은 현장 구매가 불가능하니 미리 챙겨 가야 한다.

공연행사는 오후 1시 댄스대회 형등 포토존, 바다음식 체험관, 소원풍등 날리기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차린다.

행사장에 가려면 여수시 노선버스 90번과 91번, 순천 노선버스 94번을 타면 된다. 자가용 이용자는 행사장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무료 셔틀버스를 추천한다. 셔틀버스는 소리초등학교 사곡분교 행사장, 노을바다펜션 행사장을 40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여자만의 자연경관과 바다 노을, 오감으로 느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여수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에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순천시, 2019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전남 도내 1위’

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 실적을 평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5대 국정목표, 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의 155개 지표에서 정량 지표와 정성지표 모두 우수한 성적을 올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최종 1위에 올라 3천여만원

의 포상금과 2억여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가 2018년 한해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정책 등을 평가하며, 중앙부처와 평가위원들의 합동 검증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실적향상을 위해 모든 정량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목표로 매일 추진실적을 분석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해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 관리한 것이 2년 연속 도내 1위 성과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영광군, 농업기계 안전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영광군은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19년 농업기계 안전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농촌진흥기관농업기계담당 및 안전전문관과 강원도 농업인단체, 농업기계 산업담당자 등 400명이 참석한 이번 경진대회는 ‘2019년 농업기계화 촉진 및 무인기 현장 교육행사’로 진행되었고 ‘2019년 농업기계 안전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에 전남도 대표 발표자로 선정된 영광군 농기계담당 유정훈 주무관은 영광군농기계인대사업소 운영과 농업기계 교육훈련, 안전사고 예방 등의 폭넓은 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 주무관은 부상으로 ‘2020년 세계농업기계박람회’ 참관 자격과

국외연수비를 국비로 지원 받게 된다.

한편 2019년도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추진사업 성과로 2019년 농기계인대사업 전국 평가 최우수군 선정과 2019년 전남 지방행정 연합회, 세외수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행

고흥군은 최근 고흥청정식품단지에서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정상동 부군수, 송우섭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의원, 고흥노동부 여수지청장, 고흥청정식품단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입차 지원사업 설명,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기업은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인해 만성적 구인난을 겪어왔고, 고흥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통근버스 입차 지원 사업’ 정부합동공

모에 신청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통근버스 입차 지원 사업’이란 지역산업발전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과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국가가 공용 통근버스 입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지난 2월 ‘산업단지 환경개선 통근버스 입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흥노동부로부터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전년도 사업 평가를 통해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고흥=한윤섭 기자

## 보성군, 폐암 고위험군 대상 조기검진 실시

보성군은 30년 이상 흡연한 보성군민 28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도입된 폐암 조기검진을 추진한다.

이번에 도입된 폐암 조기검진은 국가 건강검진 문진이력이나 금연치료 지원 사업 문진표를 토대로 3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자(30갑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성군보건소는 기존 5대 암 검진사업에서 폐암 검진을 추가로 실시하며, 대상자들이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검진방법은 저선량 흉부컴퓨터 단층촬영(CT)이며 검진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무료다.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본인부담금(1만원)이 소요된다.

검진 지정병원인 전남 21개 의료기관과 광주 14개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검진안내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보성=안구원 기자

## ‘화순예총과 함께하는 별빛달빛 음악회’ 20일 개최

화순군은 오는 20일 오후 7시에 화순예총과 함께하는 별빛달빛 음악회가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2연승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전비주 씨를 비롯해 박진, 김태풍, 아라, 태연, 김순주, 김태연, 류경, 임영진

등의 가수들과 하모니카 동아리 ‘하모니’, 통기타 동아리 ‘낭만키타’, 아트포 재즈앙상블, 유오디아 소년소녀합창단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장영환 화순예총 지회장은 “이번 공연이 삶에 지친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화순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을 알리고 공유하는 문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예총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시낭송, 중창, 통기타, 하모니카, 미술, 사진 등의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지원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




